

## 어린이 책꽂이



▲노빈손 곤충세계의 미법을 풀어  
라=아이들에게 자연과 가까워  
지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  
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생태 시리즈'.

마법에 걸려 애벌레가 된 노빈손이 인간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겪는 운명 곤충세계의 모험이 흥미진진하다.  
<뜨인돌·9천500원>

▲웅녀의 시간여행=여섯편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존재와 존재가 맺는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화집. 물고기 도둑, 나동근씨, 학교에 가다, 문을 열면 등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6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문학과 지성사·8천500원>

▲완득이=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지만 싸움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열일곱 살 소년이다. 철천지 원수였다가 차츰 '사랑스러운 적'으로 변모하는 선생 '봉주'를 만나면서 완득이의 인생은 180도로 바뀐다.  
<창비·8천500원>

▲찰리채플린=웃음과 눈물로 인생을 연기한 위대한 영화인 찰리 채플린의 일대기. 어려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잊지 않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가르쳐준다.  
<다섯수레·9천원>

▲한국사를 뒤흔든 열명의 장군=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 그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장군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을지문덕, 고선자, 강감찬, 삼별초, 권율, 이순신, 임경업, 전봉준 장군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만날 수 있다.  
<한림출판사·1만2천800원>

## 고 3딸에 보내는 '소설가 엄마의 편지'

##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지음

'오늘도 좋은 하루!' 엄마는 지긋 지긋한 고3을 보내고 있는 딸 아래 매주 화요일 편지를 썼다.

공부에 짓눌려 있는 아이에게 세상 사는 지혜를 전해주고, '엄마와 이야기 하기 싫다'며 토라진 아이에게 회해의 손길을 내밀고,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책의 구절을 소개해 주며 '대화'를 나눴다.

편지를 쓴 엄마는 소설가 공지영이다. 편지를 받은 딸은 베스트셀러 소설 '즐거운 나의 집'에 등장하기도 했던 '위녕'이다.

공지영이 당시 딸에게 썼던 편지를 토대로 한 산문집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를 폈다. 딸 아이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다.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편지글의 매개체는 책이다. 공지영은 누군가에게 어려울 때는 오해와 공격을 받고 힘들어 하는 딸에게 '네 자신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네 자신 뿐이다' (안셀트 그린의 '내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라')라는 구절을 들려주며 격려의 말을 전한다.

'오늘 하루만 쉬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딸에겐, 인류 최초로 하밀리아 14봉을 완등한 라인홀터 매스너의 '내 안의 사막, 고비를 건너다'의 글귀를 들려주며 매일 내딛는 한 발자국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죽음을 앞둔 팔순의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전하는 편지를 모은 수산나 타마로의 '내 영혼의 따뜻한 날들'을 읽은 날엔 딸에게 '헤어짐을 아쉽게



만들고, 영원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며, 그 사람을 알았던 것 이 내 인생에 분명 하나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잘 해 어질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또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인 황석

영의 단편 '불개월의 새'를 읽으며 모든 유치한 것들을 경멸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박경리의 'Q씨에게'를 소개하며 가장의 책임을 져야하는 '작가 엄마'의 힘겨움에 대해서도 털어놓는다.

이 책 역시 그녀의 예전 산문처럼 '솔직한 글쓰기'가 눈에 들어온다. 때론 다소 뻔한 메시지도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다 드러내며 들려주기에 진심이 보인다.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오스카 와일드의 '육중기', 로맹가리의 '새들은 꾀부에 가서 죽다', 전봉관의 '경성기답', 산드로 마리아의 '열정' 등 편지에 언급된 책들을 한 번쯤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것도 이 책의 매력이다.

책 말미에는 '조금은 별난 엄마를 둔 당신의 딸'이어서 참 많이 외로웠다'는 위녕이 쓴 에필로그가 실려 있다. '다행입니다, 정말로, 내가 당신의 딸이라는 게'라고 쓴 위녕은 '당신의 말처럼 사랑



이 나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허락하고, 넘치도록 가득한 삶과 자유를 실패하는 데 투자하고, 넓은 사막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방황하며 엄마처럼 살겠다' 말한다.

그 말에 엄마는 이렇게 답했다. '세상의 모든 문들이 네 앞에서만 셔터를 내리고 있을 때, 모두 정정된 쇠작표를 들고 있는데 너 혼자 입시 대기자 줄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보이지 않아도 널 응원하고 있는 엄마를 생각하라고.'

조광호 신부가 본문 삽화를 그렸다.

<오픈하우스·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신문기자 출신 MC의 전국 나무 여행기

## 내안에 나무 이야기 이상벽 지음



방송 생활 40년이 되던 해 MC 이상벽은 오랫동안 간직했던 사진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잠시 방송 일을 접었다.

3년 동안 필름을 쓰는 구식 수동 카메라 하나 메고 전국을 누볐던 이 씨가 필름을 팔며 찍은 사진과 글을 모아 '내안에 나무 이야기'를 폈다.

지난해 서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던 이 씨의 사진 소재는 '나무다.

10여년간 밭을 일궈 나무를 심고 가꿔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 씨는 오래전부터 나무에 애착을 가져왔다.

이번 책에 실린 작품은 모두 52점으로 용문사 은행나무, 고속도로변 자작나무 등 다양한 나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신문기자 출신답게 글솜씨도 맛깔스럽다. <크리에이티·1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긍정적 사고

## 3분 시크릿 편기록·김민광 지음



지난해 출간된 지 8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린 자기계발서 '시크릿'의 열풍은 수많은 '시크릿' 마니아들을 배출했다.

최근 1만3천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비욘드 더 시크릿' (<http://cafe.naver.com/beyondthesecret>) 사이트의 운영자와 회원들이 '시크릿 비법'으로 전수받은 성공담과 그 실천방법을 담아 '3분 시크릿-생각 편·실천 편' 두권으로 폈다.

책은 막연하게 느끼지는 '시크릿 법칙'을 활용해 공사에 핵심인 취업 준비생, 100등에서 맵들고 전교 1등이 된 고등학생 등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흐름출판·각권 1만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내 인생 한권의 책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

나는 오랫동안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며 놀았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엊그제 일처럼 기억은 환하고 선명하다.

나는 다른 아이들한테도 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엔 시시하고 하더니 어느새 옆으로 와서 기대거나 책상 가까이 들려붙어 그림을 뽑아지게 보면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

글쓰기 수업보다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어서 책에 나오는 상황과 자기 삶의 이야기를 견주어서 글을 쓰고 함께 놀려읽으면서 조금씩 아이들을 알아갔다.

공부 끝나면 아이들의 가족관이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아이들을 마음에 담았다. 아이들의 상처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내일은 더 나아지라고 빌어주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아이들에게 내어주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어기지 않고 꼭 주는 선생님, 이걸 통해 아이들은 신뢰를 배운다는 걸..

내가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아이들과 문학을 이야기하며 살아온 날들의 밑바탕에는 '문학은 인간학이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샘터)는 최민식 선생님

## 고단한 삶 이겨내게 하는 힘

의 사진에 조은 시인이 글을 붙인 책인데, 삶에 대해 이토록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 책도 드물 것이다.

고된 삶에 내몰린 사람들의 텅 빈 눈동을, 위태로운 세계 속에 들어앉은 샘물 같은 아이들,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생의 덧없음과 노동의 신성함,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매혹적인 미소 같은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절망과 마주한 아이들의 눈을 보면 숨이 멎는 것 같다. 대어날 때부터 배경이 어둡뿐인 아이들, 벗어나기 힘든 운명에 친친감긴 것 같은 아이들의 남루한 현실이 아프다.

그래서 마음 가득히 물기고 고인다. 마치 테레 블리즈의 복판화 속 아이들이, 내가 알고 지냈던 힘든 현실의 아이들이 사진 속으로 뛰어들어온 것만 같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이 책은 내게 삶의 지향점을 알려주었다.

때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은 외면하고 싶을 만큼 서글프고 끄깝다. 삶이란 처절하고 참혹하지만 끝내 두 눈으로 마주보고 끌어안아야 하는 우리 삶의 존엄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 손에서 다른 이의 손으로 자꾸만 전해져 스스로 생명력을 갖게 되는 '흘러가는 책'들 중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가 놓여 있다. 흘러가는 것들은 영혼을 흔들며 삶의 의미들을 빚어가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이는 분에게 소개했더니, 그분은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연필로 그리고 있다. 자신에게 삶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노라고 소감을 들려준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만이 어둠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그것은 자기 삶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가능하고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긴 얘기를 나누고 싶다.

정봉숙(아이숲 어린이 도서관장)

## 매매 및 교환

전남 신도청앞 일반 상업지, 숙박, 위락시설부지(건축가) 140평(평당 700만원) 절충가, 상가건물 교환상담 환영

☎ 011-330-9365 (주인직)

## 솔로몬공인증개사 여수 익스포전지역

☎ (061)644-9644 휴 010-3999-2500 (물건 다음 보유)

·여수시 물건을 우드리 분양학지 주거지역 평당: 60만~70만

·여수시 물건을 우드리 분양학지 상업지역 평당: 160만~250만원

·여수시 물건을 우드리 분양학지 도로집 조망 경관최고 1200평 평당마가: 20만원

·여수시 물건을 우드리 분양학지 도로집 조망 경관최고 1000평 평당마가: 15만원

·여수시 물건을 우드리 분양학지 경관최고 5000평 평당마가: 7만원

토지공사 분양택지  
돌산택지지구, 익스포행사장  
위락시설지구, 숙박시설  
시세보다싼 매물을 다량보유

돌산지구 토지공사택지매매전문  
★매물 다량보유 상담환경★

## 현대공인증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http://www.85858949.co.kr)

## 목욕탕 임대 급히 구함

1. 지역: 광주시내  
2. 조건: 보증금 2억까지 가능, 가스보일러이며 대출이 적은 물건

## 시외 농장부지 급히 구함

1. 지역: 영암 무안·화평군내  
2. 면적: 3~4만평  
3. 조건: 저농진입이 가능한 밭이나 애산(신립·벌채 가능한 산)  
4. 이용목적: 밭·작물을 재배  
5. 가격: 상호 협의 후 결정

## 수익성 좋은 원룸

①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인근, 대지933㎡(282평) 건평1299㎡(393평) 원룸30실 주택 6층 주택 2층 보증금 4억 2800만 원 월 653만 원 대출 4억 원, 매매가 11억 5천만 원  
②광산구 운남동 삼성아파트 정문 앞, 대지110㎡(3581.3평) 보증금 2억 1000만 원 월 1105만 원 대출 11억 매매가 16억 5천만 원

## 상가 건물 급매

①광산구 우산동 주공아파트 앞, 대지304㎡(92평) 지상 1층 지하 1층 건물 160.19㎡(351평) 임대보증금 1억 8천만 원 월 50만 원 매매가 8억 원  
②광산구 운남동 삼성아파트 정문 앞, 대지110㎡(3581.3평) 보증금 2억 1000만 원 월 1105만 원 대출 11억 매매가 16억 5천만 원

## 국민공인증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동도서관사거리 농협은행 맞은편 2층)

## 건물

①주체동 5층 복원의원매매  
대지 10평 건평 10평 지상 5층 지하 1층  
②현대백화점 일정 20×10m 코너  
207 평 보증금 5000만 원  
전면 후면 대지 10평 23×20평  
보증금 9300만 원  
③12평포 30평부지 30×6m 코너  
보증금 1000만 원 포함  
④13평기지원 대지 10평 3000만 원  
전면 8000만 원 포함 30×6m 코너  
⑤14평기지원 대지 10평